



Immediate provisionalization on an upper central incisor

장 덕 상 | 크리스마스치과 의원

임플란트에 의한 상설치아 회복은 불필요한 인접 치아의 삭제를 피할 수 있는 훌륭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임플란트 식립 후 전통적인 기전에 따르는 불가피한 일정의 치유기간은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를 기피하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어왔다. 특히 즉각적인 심미성을 요구하는 상악 전치부에서는, 인접 자연 치아나 치조제를 이용하는 임시 보철 방법이 심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임플란트 식립시에 일정 수준 이상의 초기고정을 획득하였을 때에는, 임플란트에 직접 지대주를 즉시 연결하여 임시 보철을 장착해 줌으로써 환자의 심미적인 요구를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다.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보철은 기능적인 면에서 두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는데, 교합에 완전히 참여시키는 진정한 의미의 즉시 기능 (immediate loading)과, 보철은 하지만 교합에는 일정기간 참여시키지 않는 비 기능 즉시 보철 (non-functional immediate prosthesis)이 있다. 심미성과 발음성이 중요한 상악 전치부에서는 굳이 즉시기능까지 하지 않더라도, 비기능 즉시보철로서 소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에 연자는 상악 중절치 단일치아에서 임플란트를 발치 즉시 식립 하고, 비 기능 즉시 보철을 하여 심미적이고 기능적으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